

## 협회 하반기 행사 일정 확정...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11월 17일 개최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는 지난 9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5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우수기사상 심사 및 선정 △2025 전문기자연수 시행 일정 △2025 전문신문상 선정 심의위 구성 △기타 협회 발전에 필요한 의안(회원 확대 이벤트, 전문신문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어 △2025 경영인세미나 시행 결과 △2025 한·일 전문신문의 날 행사 진행 상황 △2025 정부포상 및 우수기사상 선정 상황 △2025 상반기 회원변동 및 수지 결산 등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본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우수기사상'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회 사무국은 지난 8월 28일까지 우수기사상 추천서를 받았으며, 총 16건의 기사가 접수됐다. 이에 심사 기준에 따라 한국기독공보,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이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약사신문, 메디칼업저버 등 3건의 기사를 우수기사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수상자 안내 후 다음 정기이사회에 진행하기로 일정을 정리했다.

이어 협회 하반기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했다. 먼저 '2025 전문신문 기자연수'는 한국언론재단과 협의 후 10월 20~21일 1박 2일간

개최하기로 정리했다. 또한 오는 10월 21일 일본전문신문협회가 주최하는 '일본전문신문대회'에 협회 김광탁 회장, 김시중 고문, 윤봉한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은 오는 11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20

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비롯한 식전 강연회, 정부포상·동암언론상·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신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문신문 캐치프레이즈(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고, 선정된 작품을 기념식 행사장에 게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전문신문상 및 동암언론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이어갔다. 이날 이사회 심의사항인 '동암언론상' 후보자로 협회 홍준 이사(한국대학신문 발행인)가 추천됐다. 이에 참석한 임원들은 홍준 이사를 수상자로 결정하는데 만장일치 동의했다.

더불어 '한국전문신문상' 후보자 접수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협회 사무국은 지난 9월 말 회원사

를 대상으로 후보자 접수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신문 AI 미디어 교육센터(가칭)'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협회 사무국은 △AI를 활용한 전문신문 취재, 기획, 편집, 배포의 자동화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한 제작비용 절감 △수익기반 창출 및 독자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문신문의 위상 제고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 형성됐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회원 배가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방향은 협회 사무국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리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제49회 한국전문신문상 후보자 접수...10월 17일 마감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가 매년 창립기념일에 전문언론인들에게 시상하는 '한국전문신문상' 후보자 추천 및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49회를 맞이하는 '한국전문신문상'은 1977년 전문언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전문언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수상

하고 있다. 시상부문은 경영상·편집상·취재상·업무상·광고상까지 총 5 부문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7일 마감이며, 신청서류는 전문신문상 추천서 및 공적서 각 1부이다. 접수처는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또는 이메일(kosna1964@naver.com)로 받는다.

심사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최

종 수상자를 확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7일 예정인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한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시상 내용		공적 기간	비고
한국전문신문상	경영상	언론관련 경력 5년, 본사 근무 3년이상 발행인 및 임원	상장 및 상금
	편집상	언론관련 경력 3년, 본사 근무 2년 이상 편집업무 종사자	상장 및 상금
	취재상	언론관련 경력 3년, 본사 근무 2년 이상 취재업무 종사자	상장 및 상금
	업무상	언론관련 경력 3년, 본사 근무 2년 이상 업무관련 종사자	상장 및 상금
	광고상	언론관련 경력 3년, 본사 근무 2년 이상 광고업무 종사자	상장 및 상금

##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가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이합니다. 창립 61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전문신문의 날에는 국가사회 발전과 전문언론 창달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정부포상·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과 축하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여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2025 전문신문의 기념식◆

- 일 시 :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식전행사 오후 3시)
- 장 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프레스클럽
- 행사내용
  - 제1부 : GenAI 상용 시대, 전문미디어의 올바른 혁신 방향 (홍순성 홍스랩 대표)
  - 제2부 :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및 정부 포상 시상식 등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 ■ 문 의 : ☎ 02-334-7251~2





알림

##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캐치프레이즈’ 공모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택)는 창립 61주년을 맞아 ‘전문신문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전 당선작에 선정된 캐치프레이즈는 오는 11월 17일 열리는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행사 전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사를 비롯한 전문신문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전문신문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 대 상 : 전문신문 관련 종사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내용 : 전문신문의 비전·목표·임무·존재감 등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
- 시 상 식 : 2025 전문신문 기념식 행사 중 진행 예정

## “서울미디어그룹, 반세기 넘어 미래 100년 도약”

### 이뉴스투데이

독서신문·이뉴스투데이(발행인 방재홍)를 발행하는 서울미디어그룹이 지난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위대한 여정,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창립 55주년 기념행사 및 ‘2025 대한민국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을 개최했다.

방재홍 서울미디어그룹 회장은 개회사로 “독서신문은 1970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서하는 국민’이란 휘호를 근본으로 우리 국민의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 한결음씩 걸어왔다. 이뉴스투데이는 정확한 보도와 품격있는 시선을 원칙으로 20년간 시대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는 언론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과정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함께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 열정에 뜨거운 고마움 전한다. 서울미디어그룹은 지나온 반세기를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언론의 소명을 다하겠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 2부에선 ‘2025 대한민국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도 함께 열렸다. ‘대한민국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은 환경보호, 사회적 참여, 투명한 경영 등 ESG 원칙을 준수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의 심사위원장인 옥경영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로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기업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ESG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에 만족과 감동을 주는 경영을 하기를 바란다”고 총평했다.

‘2025 대한민국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 장관상은 △하나은행(종합부문 과기부) △로보락(종합부문 산업부) △코웨이(종합부문 환경부) △쿠팡(디지털혁신부문 중기부) 등이 수상했다.

이어 △스마트텔(종합부문 방통위 위원장상) △오비맥주(ESG 상생협력 부문 대상) △에이피알(ESG 예코 실천 부문 대상) △스타벅스(ESG 친

환경마케팅 부문 대상) △하이트진로(ESG 친환경경영 부문 대상) △메가인포세트(ESG 금융혁신 부문 대상) △큰사람커넥트(ESG 스마트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 △유니컴즈(ESG 디지털혁신 부문 대상) △KGM(ESG 친환경모빌리티 부문 대상) △동화기업(중기부 ESG 친환경지원순환 부문 대상) △템퍼코리아(프리미엄리빙 부문 대상) 등도 수상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리솔(중기부 ESG 헬스케어혁신 부문 대상) △사리원(ESG 선도기업 부문 대상) △동방F&B 부강옥(ESG 식품산업 부문 대상) △피치파크게임즈(ESG 선도기업 부문 대상) △인성유권자협회 회장 김대영(ESG 시민의식선도 부문 대상)도 상을 받았고, 의정대상은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차지했다.

##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역대 최다 관람객 7만명’ 기록하며 폐막



### 불교신문

불교신문(발행인 진우스님, 사장 원허스님)과 BBS대구불교방송(사장 정문스님)은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4홀에서 전통불교문화의 진수를 널리 알리며 ‘2025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역대 최대 사전등록자 2만 명과 4일간 현장 방문자 7만(누적 인원)을 기록하며 최대 흥행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회향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불교문화엑스포는 찬란한 불교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대구·경북 지역의 풍부한 불교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통불교문화 산업의 진흥과 확산을 도모하는 대표 행사다.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14일 대구 엑스코 동관4홀에는 오전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팔정도 카드를 모은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가피(加被)박스’는 이날도 개막 2시간 만에 조기 소진되는 등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전시장 곳곳에 마련된 불교 관련 굿즈 부스에는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위상이 높아진 불교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

인했다.

여기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연꽃만들기 부스와 불교신문 부스 내 극락포토존, 2025 선명상 프로그램 심주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에는 인파가 몰려 대기 줄이 늘어지는 등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불교문화엑스포에서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일상 속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불교문화상품전’에는 공예·건축·의복·차·수행의식 등 생활 속에서 불교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127개 업체, 187개 부스가 참여해 전시 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붐볐으며,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장을 열었다.

2025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사무국 측은 “서울, 부산, 대구로 이어진 올해 불교박람회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총 7만 명 이상의 찾은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면서 “이번 불교박람회의 성과는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세대 간 관심을 확산시키고, 불교문화산업이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기성세대뿐 아니라 MZ세대까지 아우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 대미 통상 변화에 국내 원예산업 ‘빨간불’

### 원예산업신문

원예산업신문(발행인 장호열)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1일 ‘대미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 원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편집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기반 유지 전략과 국내 생산기반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수입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브랜드 중심의

고급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생산-유통-마케팅 전반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원예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품종 다양화와 유통방식 개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등 작업 공정을 간소화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구축, 품목별 공동조직 육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은 “수출 구조의 고부가가치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프리미엄 품종 개발과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선별·포장 체계 정착, 수출국 다변화로 통상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묵 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기능성·친환경 가치를 갖춘 프리미엄 농산물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프리미엄 전략과 함께, 산지 신뢰도와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수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원예산업은 품질과 안전성 기반의 차별화가 핵심”이라며 “가공식품과 융복합 산업, 체험 관광 연계를 통해 소비자 친밀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급조절 시스템과 유통 구조 정비로 내수 안정성과 수출 기반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수출 기반을 뒷받침하려면 전문농·기업육성과 청년 귀농 정책을 연계해,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시설 현대화와 안전성 인증 체계 강화도 병행돼야 수출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 가스신문 명예기자단 춘계합동연수 성황

### 가스신문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가스신문사 임직원과 명예기자단(독자위원회)이 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가스신문 임직원과 가스신문 명예기자 등 총 70여 명은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시 해운호텔 하얏트에서 춘계 합동연수를 개최했다. 연수 세미나에서는 화성공조 전무 김원기 명기(1기)가 ‘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명예기자단은 이날 제10대 임원진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올해부터 제10대 단장은 케이에스지앤피(주)의 김한수 대표, 부단장은 세종에너지 강보성 대표와 지엠시글로벌(주)의 임태원 대표, 감사는 KC안전기술(주)의 정석열 기술이사, 사무국장은 아산온천LPG충전소 한용훈 대표, 청년재무국장으로는 이레종합배관 권한진 차장이 명예기자단 2026년



까지 2년간 이끈다.

김한수 단장은 “2025년은 가스신문 창간 36주년, 명예기자단 3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단장으로서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명예기자들이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춘계 합동연수와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영근 가스신문 발행인은 “건설업계가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가스업계도 자연스럽게 과거보단 힘든 여정을 가고 있다”며, “그러므로 LPG,

수소 등 가스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며, 현재의 불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명예기자들과 가스신문이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스신문은 김명오 전단장, 김보학 전감사, 김한수 김현기 전부단장, 임태원 전사무국장, 한용훈 전재무국장, 대전충청 흥대령 전간사, 부산·울산·경남 정민석 전간사, 광주·전라 박성준 전간사, 강원 권영승 전간사 등 전 임원진과 지역별 간사 총 10명의 명예기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 기후변화 ‘재난수준’… 특별법 통한 어선감척에 집중할 때



### 농수축산신문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집중적 어선감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수축산신문(발행인 길경민)은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문대림(제주갑) 의원 주최하고, 농수축산신문과 수협중앙회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수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집중적 어선감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에 특별법을 통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정리한 바 있다”며 “현재 어업의 여건을 반영, 특별법을 통해 5년 이내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어선을 줄이고 어선현대화로 어업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후변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바다이며 수산업계가 직면한 지금의 상황은 기후재난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별법은 기존 법률로는 한계가 있을 때 제정하는 것으로 어선감척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선감척사업의 어업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궂은 날씨도 꺾지 못한 8천 바다 달리기 열정

### 한국해운신문

한국해운신문(발행인 이철원)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상암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제30회 바다의날 기념 마라톤 대회(이하 바다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해운신문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바다마라톤대회는 짧은 개회식을 뒤로 한 채 참가자들은 출발점으로 이동했다. 올해는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풀코스가 없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30분 늦은 8시 30분부터 하프코스 주자들이 출발했다. 코스는 모두 상암을 기점으로 서울 서쪽으로 향했으나 지난 대회와는 코스가 다소 변경됐다. 하프코스는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달리다가 창릉천교에서 1차 반환 및 성미다리에서 2차 반환 등 2개의 반환점을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10km는 하늘 공원과 노을공원을 순환해 인조잔디축구장에서 반환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5km는 이보다 더 앞선 거울분수에서 반환점을 돌아 다시 평화의광장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남자부 하프코스 우승자는 박경민 선수가 차지했다. 박경민 선수는 1시간 10분 35초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남자 하프코스 1위 기록보다 무려 5분 가량 앞선 기록이다. 또한 남자부 하프코스 2위 역시 준수한 기록인 1시간 11분 25초를 기록한 고성민 선수가, 3위는 1시간



14분 01초를 기록한 주인석 선수가 차지했다.

여자부 하프코스 수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기록이 단축됐다. 여자부 하프코스 1위는 1시간 22분 08초를 기록한 이지윤 선수가 차지했다. 직전 대회 여자 하프코스 우승 기록이 1시간 24분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자부보다는 덜하지만 여자부 하프코스 역시 상당히 좋은 기록이 나온 셈이다. 2위는 직전 대회와 그 이전 대회 하프코스에서도 2위를 차지했던 이선영 선수가 본인의 기록을 1분 정도 앞당긴 1시간 26분 07초를 기록하며 3년 연속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1시간 26분 15초를 기록한 정혜란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2분 이상 앞당기며 지난해에 이어 마찬가지로 3위를 차지했다.

바다마라톤대회를 주최한 한국해운신문 이철원 발행인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가 마무리돼 안전을 기원하는 바다마라톤 대회의 취지가 잘 살아났다”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잘 된 점은 더욱 살려 내실 있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바다마라톤대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37회 복지부테니스대회 ‘수중전’ 열기…식약처 우승

### 의학신문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과 보건복지부 테니스동호회(회장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는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에서 ‘제37회 보건복지부장관배 보건복지가족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단 등 복지부 업무로 2년만에 열린 이번 경기에서는 복지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유관기관 등 21개 기관 59개 팀 35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 첫날에는 개회식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빗방울이 강한 빗줄기로 이어져(일평균 강수량 30mm)으로 경기가 중단될 뻔 했지만 참가팀들이 수중전을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마지막날에도 비의 영향으로 일부 시간이 조정됐다.

임호근 회장은 폐회사에서 “일기예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기상상황으로 여러가지 일정 조정이 있었는데 다들 양해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즐거움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 이맘때에 높아진 기량으로 다시 한번 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틀 동안 치러진 경기를 통해서 37회 대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연금공단을 꺾고 1부팀 우승자가 됐다.

2부에서는 국립법무병원이 질병관리청(B팀)을, 여성부에서는 국립재활원이 연금공단(B팀)을 꺾고 각 경기의 우승팀이 됐다.

이번 경기에서는 연금공단의 활약이 돋보이기도 했는데, 1부와 여성부에서 준우승을 달성하는 한편, 여자부에서는 4팀(A~D팀)이 8강에 오르는 등 저력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 테니스대회는 보건복지 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선수와 응원단으로 참여, 체력을 단련하고 단합된 모습을 표출하며 화합과 친선을 다지는 대회로, 1983년 1회 대회부터 의학신문이 주관하고 있다.



## 인허가 전문가 노하우 한자리에… 2025 바이오 규제 혁신 컨퍼런스

### 약업신문

약업신문(발행인 함태원)이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 웨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2025 BIO Regulatory Innovation Conference(바이오 규제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약업신문이 주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신약 개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다뤘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또한 미국 규제전문가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 신약 연구개발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팁과 현장 노하우 등이 다뤄졌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



면서, 향후 변화를 맞이하게 될 미국 FDA 규제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약업신문의 함태원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 FDA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있어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다”며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과 전략적인 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71주년을 맞이한 약업신문은 그간 국내 제약업계와 함께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조창희 연구관의 신약 개발 제품화 지원 방향(Government Support Strategi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ew Drug Development) 주제의 오프닝 세션을 필두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 “수지침사(인증) 실력자, 美 침술사 진출 기회 만들 것”

### 보건신문

보건신문 발행인이자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이 지난 8월 31일 미국 LA 근방의 도시에서 거주침술위원회 김현관 부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유태우 회장은 고려수지침은 한국에서 개발했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자원봉사에 이용하며 이론과 임상 실력이 우수한 실력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국 침술사(한국인은 한의사라고 부른다)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수지침 실력자가 미국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1월경에 한국에 와서 자세하게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 젊음의 열정으로 조국의 허리를 달린다

### KFF뉴스

KFF뉴스(발행인 강석호)을 발행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13회 한반도 화해·협력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 완주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유재석 전국 청년협의회장과 본부 임직원 및 대원 80명 등이 참석했다.

DMZ 대장정단은 지난 8월 4일 출정식을 가진 후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으로 이동했다.

이후 고성통일전망대-백골위령탑전적비-양구통일관-피의능선전



적비-평화의 댐-임진각 등 DMZ 남방 총 320km를 도보로 횡단하며 안보의식을 다졌다.

강석호 총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적극적인 자세와 젊음의 패기로 대장정에 임해준 데에 대해 드

거운 격려를 표한다”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았던 의미 있는 기회였던 만큼, 그 경험을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 밀교신문

밀교신문(발행인 능원 정사)을 발행하는 대한불교진각종에서 지난 8월 19일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제59기 회당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통리원장 능원 정사(회당 장학회 이사장)는 장학증서 전달 후 “달걀이 그냥 요리로 끝나는 삶이 있고, 부화하여 닭으로 자라나 다시 달걀을 낳는 삶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부화하고자 하는 발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3분이 라도 진언명상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 내 마음이 크고 밝아져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고 당부했다.

앞서 총무부장 법운 정사는 강도 발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진각행자들이 자기 수행과 중생제도를 위해 용맹정진하고 건강한 몸과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정진에 임하여 긍정적인 삶을 통해 종단 발전과 개인서원 성취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회당장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실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문을 배우고 익혀 사회와 나라발전에 기여 △부처님의 은혜를 지혜로써 깨달아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 △진언행자로서 본분인 회사와 염송으로 지혜를 밝힐 것을 다짐했다.

## 천만 노인 시대, 치과도 ‘돌봄’이 필요하다



### 치의신보

치의신보(발행인 박태근)는 치과계 100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획 포럼, 그 첫 번째 주제를 ‘초고령사회와 치과 의료’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오피니언리더를 초청해 지난 8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의 장을 열었다.

포럼 좌장은 치의신보 편집인인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가 맡았다. 이어 패널로 이민정 치협 부회장, 고홍섭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 명예회장, 최영균 스마일재단 이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홍섭 교수의 ‘돌봄통합법 및 방편치과진료 시행

을 위한 치과계의 준비’, 이성근 명예회장의 ‘대한민국 구강돌봄진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최영균 이사의 ‘요양기관에서의 치과 진료 현황 및 문제점’ 등 각 패널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또 이를 바탕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해, 치과계가 당면한 해결 과제를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공통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의신보가 치과계 미래 100년을 고민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초고령사회는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영향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치과계 모두가 고민해야 할 주제”라며 첫 번째 포럼의 문을 열었다.



## [ 발행인 컬럼 ]

## “사실과 의혹을 뒤섞는 순간, 언론은 마녀사냥을 한다”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발행인

최근 특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비서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포렌식 절차도 예고됐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 개시” 단계이지, “범죄 입증” 단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이 과정을 마치 범죄 사실이 드러난 듯 보도한다.

제목에는 ‘매관매직’, ‘대가성 뇌물’ 같은 단어가 줄줄이 등장하고, 기사 말미에는 “범죄가 확인되면 과장이 클 것”이라는 문구가 붙는다. 이쯤 되면 국민의 눈에는 이미 “죄인”으로 낙인찍힌다. 수사는 아직 시작일 뿐인데 말이다.

언론의 가장 큰 책임은 의혹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인처럼 묘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보자면, 이번 사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수사와 보도의 단계 구분이 사라졌

다. 수사는 수사일 뿐, 판결이 아니다. 언론은 의혹 제기를 넘어서, 마치 범죄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서술한다. 이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둘째, 공과(功過) 분리의 원칙이 무너졌다. 의혹은 철저히 검증하되, 그 사람의 업적과 기여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보도는 이 전 위원장의 유네스코 등재 성과, 한국 문화유산 보존 기여 같은 긍정적 기록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한 개인의 사회적 기여가 의혹 보도에 의해 송두리째 덮이고 있다.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언제나 사실·법리·상식 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실과 의혹을 뒤섞고, 공과를 분리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보도 행태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언론과 사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다. 의혹 제기는 자유롭되, 사실 확인과 균형 감각이 없는 보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면 된다.

그러나 언론은 재판보다 앞서 판결하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치주의와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길이다.

## 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대를 품는다. 달라지기를 바라고,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겉보다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국정

의 방향, 사회의 품격, 국민의 삶이 오래도록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책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책은 시대의 거울이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름이다. 기술은 편리함을 주지만, 품격은 책에서 나온다. 정보는 검색으로 얻을 수 있지만, 이해와 통찰은 독서로 길러진다. 책을 읽는다는 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며,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키워가는 일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문화적 인프라다.

세상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비서를 대체하고, 알고리즘이 사람의 선택을 대신한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즉 사유하고 공감하며 책임지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능력은 책에서 비롯된다. 책을 멀리하는 사회는 결국, 방향을 잃고 만다.

수많은 정책과 제도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하게 된 것이 있다. 문화는 위에 서부터 흐른다. 지도자의 철학이 행정으로, 행정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거치며 사회는 변해간다. 대통령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달라진다. 그 한 권의 책이 청소년의 손에 쥐어지고, 어른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 캠페인이 아니라 실천이 결국 문화를 이끈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기술 발전 면에서 분명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 국민의 정서가 풍요로워졌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마음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회는 더 피로해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결국 사람의 행복은 정서적 평온과 관계의 따뜻함, 삶을 스스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에서 오지 않는가. 그러기에 책은 지금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게 바란다. 책이 살아나는 나라, 책이 정책의 언저리가 아닌 중심에 놓인 나라를 함께 그려주기를. 공공도서관을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고, 아이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독서문화 정책을 마련하며, 출판 생태계의 회복을 문화의 뼈대로 삼는 일. 이는 단지 문화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국정철학의 출발점이다. 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통령의 손끝에서 열리는 한 권의 책일 수 있다.

## 죄와 구원의 경계, 심리 스릴러의 정수를 담다!

뮤즈온에어  
유수성 발행인

영화 ‘살인자 리포트’가 시작되면, 관객은 즉시 주인공의 시선을 빌려 세상 속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연쇄 살인을 추적하는 스릴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적 갈등과 인간 내면의 어둠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철학적 탐구가 숨어 있다. ‘살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영화를 떠올리며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르는 장면은 김민정(조여정 분)이 진실에 점차 다가가는 순간이다. 그녀가 사건을 파헤칠수록, 점점 도덕적 갈등에 갇혀가는 장면은 관객에게 큰 충격을 준다. 특히 김민정이 기자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서 인간적 감정과 맞부딪히는 장면에서는 숨이 막힐 정도의 긴장감이 흐른다.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은 반전이 터지는 순간이다. 영화는 이 반전을 통해 권력, 욕망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한 명의 기자가 사건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시스템과 맞닥뜨리게 되며, 그 안에서 진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영화의 핵심은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갈등과 인간의 심리적 혼란이다. 사건을 추적하는 기자와 연쇄살인범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

은 살인이라는 사건을 통해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관객은 사건을 추적하는 동안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의도와 그로 인한 자신의 내면적 치유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특히, 영화는 살인자라는 존재를 인간의 심리적 결핍과 상처를 보여주는 어두운 거울로 설정했다. 살인이 치유의 도구로 묘사될 때, 관객은 그 행동을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혼란스러움이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심리적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이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품이다.

조여정은 기자로서의 냉철함과 인간적 고뇌를 완벽하게 그려냈으며, 정성일 역시 연쇄살인자로서의 심리적 갈등을 뛰어난 연기로 표현했다. 전개 속도가 긴장감에서 전혀 지루하지 않으며,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이 관객을 몰입하게 만든다.

엔딩 크레딧이 흐를 때쯤,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은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은 듯하면서도 여전히 길을 잃은 듯한 착잡한 여운에 잠긴다. 진실을 쫓던 모든 이들의 내면 의문이 교차하며, 영화 ‘살인자 리포트’는 끝까지 해답을 봉인한 채 관객을 놓아주지 않는다. 스크린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진실은 미궁이며, 그 미궁을 헤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임.

## ‘짜면 된다’ 초저가 소비 시대 식품외식 기업의 탈출구는?

식품외식경제  
박형희 발행인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질 당시인 2000년 전후반의 일이다. 동경을 방문할 때마다 점심 시간이 되면 편의점에 직장인들이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등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경을 방문하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한편에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그곳에서 파는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등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불황형 소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당시 일본 식품외식업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짜면 된다’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였다.

최근 국내 소비 트렌드가 일본 버블경제가 무너질 당시처럼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로 접어들었다. 불황형 소비의 대표 식품인 컵라면 매출이 급증하는가 하면 고물가에 초저가 상품이 범람한다.

편의점마다 990원짜리 삼각김밥, 핫바, 아이스드링크 등 초저가 상품이 인기를 끌고 롯데마트의 ‘요리하다 월드뷔페’,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T카페’는 2990~3990원 도시락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대형마트마다 초저가 상품을 출시하며 저마다 고객몰이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치킨이다. 롯데마트가 ‘통

큰치킨’을 5000원에 출시하자 이어 홈플러스는 ‘당당3990옛날통닭’을 3990원, 이마트는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출시했다. 마치 각 사가 초저가 전쟁으로 치킨 게임을 하는 듯하다. 지난달 말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로 오픈한 베이커리전문점 ‘슈가 ETF’는 소금빵은 990원, 식빵을 1290원에 판매하자 평일은 100팀, 주말이면 700여 명이 대기할 만큼 고객이 몰렸다. 시중 빵집에서 2500~3500원에 판매하는 소금빵을 990원이라는 초저가에 판매하자 고객이 몰린 것은 당연하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영업을 종료했다.

최근 식품외식업계의 소비 트렌드는 맛보다 가격이 우선시 되고 있다. 많은 언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이제는 외식도 ‘사치’라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도시락조차도 ‘사치’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삼각김밥과 콜라, 햄버거와 저가 커피로 한 끼를 때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도 극심한 불황을 대변하는 듯하다. 점심 한 끼조차 부담이 커지면서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지는 오래전 일이다. 점심 한 끼 제대로 먹으려면 적어도 1만2000~1만5000원은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집밥이 대세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연 외식이 사치일까. 사회 전체가 극심한 불황과 치솟는 물가로 인해 불황형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외식 기업의 탈출구는 어디인지 고민스럽다.



## 기자 수첩

## 종자산업, '두 번째 골든시드'가 필요한 이유

농업인신문 박정완 기자

2012년부터 10년간 추진된 골든시드프로젝트(GSP)는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꾼 국가 전략사업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농촌진흥청 등 4개 부처가 협력해 21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종자 개발부터 상용화·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농업 분야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융합형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내 종자산업은 외국 품종 의존도가 높고, 국산 품종은 연구실 단계에 머물러 산업화와 수출 역량이 매우 취약했다. 그러나 GSP를 통해 민관 컨소시엄 중심의 실용화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12년 50%에서 2022년 73%로 늘었고, 종자 수출액은 같은 기간 2,600만 달러에서 6,3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파프리카·국화·딸기·김·넙치 등 다수의 품목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한 국산 품종이 등장했고, 이는 종자산업을 '농업의 반도체'로 부각시키는 전환점이 됐다. 종자를 단순한 농자재가 아닌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바라보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GSP가 종료된 뒤, 이를 잇는 후속 대형 프로젝트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AI·유전체육종·디지털 육종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품종 개발 기간을 10년에서 3~5년으로 단축시키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이다. 국내 기업들은 자본력과 연구 인력의 한계로 다시 격차가 벌어질 위기에 놓였다. 이 흐름을 방지한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마저 잃을 수 있다.

종자산업은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품종 개발에만 10년 이상 걸리고, 한 세대가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다. 단기적 예산 논리는 산업적 도약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 GSP처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가 종자 프로젝트'다. 연구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끌어주는 대형 사업이 다시 한 번 추진돼야 한다.

지난 18일, 한국종자협회가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종자업계 민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60년간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종자산업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100년의 도전'을 오늘 여기서 함께 시작하자고 결의했다.

현장의 뜨거운 다짐은 종자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 이 결의가 제2의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이어질지 기대한다.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식량안보의 최전선이다. GSP가 남긴 씨앗을 거두려면, 이제 정부가 '두 번째 골든시드'를 심어야 할 때다.



## K패션의 달라진 위상, 금융자본이 움직인다

어패럴뉴스 정민경 기자

패션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진 올해, 오히려 금융자본은 더 흘러들어오는 분위기다. 무신사, 지그재그 등 신흥 패션 플랫폼에 집중됐던 투자는 이제 브랜드로 확장되고 있다.

투자 업계에서 패션은 비인기 섹터였다. 지난해 6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기자가 컨택했던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은 아직 패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본 레퍼런스가 없었던 터라 당장 계획도 없다고 피드백을 줬다. 예상보다 패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는데, 이는 패션 기업으로 큰 이익을 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K컬처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관련 섹터들이 수혜를 보았는데 패션보다 먼저 글로벌 사업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던 뷰티가 기관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은 길지 않아 반전됐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사들의 연락을 받았다는 패션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투자사들은 패션 섹터에서도 '마르니메크르디'와 같은 단기간 내 급성장하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이, 에프앤에프의 사례에서는 연간 조 단위 매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브랜드를 직접 발굴하기에 나섰다. 투자사들이 접촉한 브랜드들은 연간 매출 100~200억 원 안팎 규모의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곳이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 유통 채널로 연간 100억 원대 매출을 내는 영 패션 브랜드 2개가 벤처캐

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또 다른 한 브랜드는 현재 사모펀드(PF) 운영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곧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곧 해외 사업을 시작하는 A브랜드 대표는 "이번 시드 모금 라운드를 오버부킹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에이유브랜즈가 좋은 사례가 됐다. 이후 기관들의 패션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유브랜즈는 지난 4월 3일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1만6,000원 대비 약 51% 높은 2만4,100원에 거래됐다. 상장 후 이틀간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는 969대 1의 경쟁률, 청약 증거금 3조 8,800억 원, 전체 청약 건수는 16만9,382건에 달했다. 패션 기업 상장 사례 중 이례적인 흥행이다.

한국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이 달라진 만큼, 해외 사업 확장에 적기임이 분명하다. 과거 국내 유통 중심 성장에는 기업의 재력으로 충분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잉여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때 투자 업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인 듯하다. 금융자본과의 결합, 즉 건전한 자금 조달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최종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빅피처가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 제각각 의료사고 정책들 맞물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의학신문 박양명 기자

13.4%, 48.2%, 36.8%. 대표적인 기피 진료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다. 수치 그대로 젊은 의사들이 이들 과를 전공하지 않겠다고 등을 돌린 것이다.

젊은의사들은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기피의 이유로 가장 먼저 꼽고 있다. 단순히 일이 힘들다는 하기 싫다는 게 아닌 것이다.

문제는 위축되는 의료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꼭 받아야 하는 수술, 분만을 할 의사가 없으면 치료를 못 받으니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사고 조정 중재, 손해배상 소송 등의 환자 피해구제 절차가 있다.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사고 조정 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손해배상이라는 의사의 급진적 위기를 막아줄 배상공제보험도 있다. 형사적 책임 부담을 도와줄 보험 상품도 나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도 있다.

의사와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음에도 좀처럼 제도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인의 법적 책임 부담'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칭)의

료사고심의회위원회를 만들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를 줄이겠다고 했다.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대변인 제도도 만들었다.

국회에는 관련 법이 계류하고 있다.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있고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 및 소비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서만은 형사적 책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까지는 만들어졌지만, 의료인의 무조건적인 형사책임 면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자든 의사든 의료사고를 겪으면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게 정부와 국회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상황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한자단체연합회 등의 조직은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함과 동시에 의료사고를 겪은 당사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의사와 환자는 '신뢰'로 맺어져야 하는 관계니 말이다.



## 서비스 품질 경쟁 이뤄지길

정보통신신문 서유덕 기자

지난 7월 22일부로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졌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막아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4년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오히려 이통사 간 경쟁이 줄어들어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지속돼 시행 10여년 만에 전격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이통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이통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업체의 보조금 과다 지급 등 편법이 횡행해 자칫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에 그랬듯, 이용자 간 차별을 비롯해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나 지원금 등의 정보 오인 유도 같은 불건전한 상행위 풍토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및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 등 상세 내용 표시 의무 부과 같은 조치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제정 전 팽배했던 시장 내 무질서를 방지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한편으로는 이통사들이 저가 출혈 경쟁에 내몰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업

계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어 통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 SK텔레콤 대규모 보안 사고에서 보듯, 방만한 투자와 관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고객인 사용자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국내 통신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물론 기업의 윤리적 측면까지 다방면으로 고려하는 최근 소비 동향을 고려하면, 이통사는 단통법 폐지를 이유로 인프라 투자를 줄일 시 자충수나 다름없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시장 재편 흐름을 기회 삼아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면 시장 내 우위를 점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자칫 통신 업계를 저가 출혈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올바른 전략을 설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이통사가 단말기 가격 경쟁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서비스 품질 고도화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제3회 우수기사 후보

■ 가스신문

LPG사용가구의 ‘편리성·안전성·경제성’ 모두 잡았다



LPG사용가구를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금속배관 개선 지원사업을 비롯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또는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LPG가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LPG배관망 사업은 거주민이 분산돼 있을 경우 사업시행이 쉽지 않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시본부는 충남 부여군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사업은 지난해 충남 보령시와 공주시 등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서 참여에 나서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와 충남 부여군이 추진 중인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을 살펴보았다.

시설 완성검사 현장을 방문한 가스안전공사 윤종택 대전광역시본부장은 “본 사업은 안전에서 다소 소외되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복지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가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충남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김대만 에너지팀장은 “부여군에는 도시가스를 비롯해 LPG배관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스가 공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마을단위 배관망사업의 기준이 되는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와 마을단위 배관망사업 등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과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여군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MOU를 체결한 뒤, 개선가구 선정과 접수, 홍보는 부여군이 맡고 사업자 선정과 완성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기로 했다. 덕분에 해당 사업은 시행착오없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LPG사용시설 ‘고무호스 →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사업 한창



2024년 LPG고무호스 사용가구의 금속배관 교체지원사업은 2023년보다 10%가량 증가한 3만74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LPG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2024년에는 3만7400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개선규모가 가장 많은 충남 천안시의 개선현장을 찾아, 금속배관 교체지원사업의 효과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초창기부터 금속배관 교체지원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 A대표는 “천안 외곽지역은 포도와 논농사 등 소규모 농가가 들어서 있

	제호	성명/직위	보도일자	기사 제목
1	가스신문	이경인 부국장	25.01.02	[기획] 르포-가구단위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펼치는‘부여군’ LPG사용가구의 ‘편리성·안전성·경제성’ 모두 잡았다
2			24.10.17	[기획]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을 가다 LPG사용시설 ‘고무호스 →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사업 한창
4	농촌여성신문	김정자 기자	25.06.16	[기획특집] 디지털시대, 가족 소통 회복법은… 스마트폰에 갇힌 가족, 대화의 창 열어야
		이희동 차장	25.03.17	[기획특집] 청년 여성들, 농촌살이 매력에 ‘퐁당’ 청년여성들 “농촌에서 농사만 짓나요!”
5		민동주 기자	24.07.15	[기획특집] 살인 진드기 농업인 생명 위협한다.(경북 상주 이영숙씨) 건강 잃고 생활고에 농사일도 못해 ‘삼중고’
6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25.04.29	버제니오 급여 지연에 병원 떠도는 조기 유방암 환자들
7	뮤즈온에어	임수진 기자	25.08.22	케이팝 데몬 헌터스 “부산 국제영화제 특별상영, k-컬처 열풍 이어간다”
8		유수성 기자	25.02.28	영화 ‘하얼빈’, 역사적 진실을 그린 영화, 그 이상의 의미
9	약사신문	김민건 부장	25.08.14	[명의처방] 중증 아토피 극심한 가려움, 완전 개선한 린베코 처방 증례
10		김응민 차장	25.05.30	[환자를 만나다] 담도암 환자가 말하는 ‘혁신 신약 접근성의 벽’
11	의학신문	이재원 기자	24.08.06	경영년에 무급휴가도 확대하는 병원들…“이러다 무너진다”
12	한국기독교공보	특별취재팀 (표현모 부국장 대우, 신동하·임성국 부장)	25.01.04 ~08.02	[한국 선교 140주년 기획] 언더우드의 유산(8회 연재) (1)제물포에서 언더우드를 생각하다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거목의 유물들’
13	한국임업신문	김지현 기자	25.06.26	[산불현장 인터뷰] “산불복구… ‘빠른 복구’ 방법 선택을” “산불피해 빠른 복구, 하루가 급해요”
14			25.04.09	[KFN 창간 29주년 인터뷰] 임찬성 충북 산촌활성화지원센터장, “독자적 지원체계 구축해야”
15	환경타임즈	김정기 전남본부장	2025.08.19	세계 섬 전문가, 여수에 모인다…‘2025 국제 섬 포럼’개최
16			2024.01.22	순천시, 공 사유림 매수사업 본격화
17			2023.10.04	순천정원박람회, 추석연휴 최대 관람객 다녀가
18			2008.08.27	전남도, 발암물질 적극 홍보로 농어촌 주택 개량 유도키로

다”며 “이들 지역의 거주민들은 상당수 어르신들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G사용시설의 일부는 벽을 뚫는 방법 대신 주방후드나 유리창을 통해 가스호스를 실내로 연결해 사용하는 등 위험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개선사업자는 시공업체 또는 시공업 면허를 갖고 있는 LPG판매사업자가 선정되는데, 이중 시공업체는 LPG를 공급하지 않는 만큼, 비교적 지역제한없이 노후시설을 발굴할 수 있어 개선사업이 조금 수월하다는게 현장 작업자의 설명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시공업체 A대표도 천안 외곽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미처 개선되지 못한 시설을 발굴,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었다.

10여년 이상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한 A대표는 성공적인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지역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촌여성신문

스마트폰에 갇힌 가족, 대화의 창 열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위험군은 4.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년간 동일한 수치로 유지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중독 현상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폰 과의존군의 80.4%는 스스로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군에서도 약 25.1%가 ‘과다 사용’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통제력이나 사용 조절 능력은 부족한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숏츠, 게임, 메신저, SNS가 과의존군의 주 소비 콘텐츠로 꼽혔으며, 자발적 조절이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과 유·아동의 과의존은 가정의 중재력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만 3~9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울음을 달래거나 식사 중 방해받지 않기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현직 A고등학교 교사 김 씨는 “지역과 학교마다 디지털기기 사용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별로 수업의 성격에 맞춰 디지털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정부에 대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청소년 대상 가이드라인’ ‘과의존 예방 캠페인 확대’ 등을 요구했고, 기업에는 콘텐츠 중독 방지를 위한 알람 제한, 사용 경고 등 기술적 설계를 주문했다.

청년여성들 “농촌에서 농사만 짓나요!”

도시소녀가 시골할매와 힘을 합쳐 음식을 매개로 사업화에 성공한 경남 함양의 ‘숲속언니들’ 농업회사법인은 귀농·귀촌 청년여성들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한 모델로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농촌 관광·체험 비즈니스 모델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건 물론이고, 지역에 부족한 문화·여가 활동도 펼쳐가고 있다.



영화 '하얼빈'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재조명을 넘어, 독립을 위한 개인들의 투쟁과 그들의 내면적 고뇌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우민호 감독의 강렬한 연출력과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등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는 이영화에 몰입감을 더하며,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고뇌와 희생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이씨는 “뼈가 부러진 거면 나아서 돌아다니는데, 진드기에 물



## ■ 약사신문

### [명의처방] 중증 아토피 극심한 가려움, 완전 개선한 린버크 처방 증례



아토피피부염(이하 아토피)은 염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환자마다 병변 위치·양상·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질성이 큰 질환이다. 일부 환자는 전신에 병변이 퍼지고, 다른 환자는 얼굴·목 등 특정 부위에 집중되기도 한다. 또 진물이 나오는 심한 염증부터 단순 건조한 상태인 환자까지 병변 양상도 폭넓다.

아토피는 이질성이 높은 질환이지만 만성 질환이기도 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가 요구되기도 한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사용해 온 듀피젠트(두필루맷) 등 생물학적 제제가 효능에 더해 풍부한 장기 안전성을 토대로 의료진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은 이유이며, 듀피젠트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이 많았던 배경이다.

그러나 올해 3월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 투여 시 보험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초기 치료부터 환자별 아토피 이질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유연하게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마련됐다.

국내 아토피 치료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온 장용현 경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한 가지 약제만 선택 가능한 과거에는 이질성이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치료 관점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환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를 우선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교체 투여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초기부터 JAK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가 더 적합한 환자를 구분해 적절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교수가 선택하는 약제 중 하나가 JAK억제제 린버크(우파다시타닙)이다. 장 교수는 왜 가려움증이 심한 아토피 환자에서 린버크를 선택했을까.

장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가려움증을 치료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줄여주면 피부 병변 호전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삶의 질은 빠르게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린버크는 IL-4/13 경로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주요 사이토카인인 IL-31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가려움증을 보다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에서 조기 억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린버크는 다양한 사이토카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이라 피부 염증 또는 가려움증이 심한 중증 환자에서는 JAK억제제가 생물학적 제제보다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환자를 만나다] 담도암 환자가 말하는 ‘혁신 신약 접근성의 벽’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혁신신약 가치 인정의 명과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포럼에서 53세 담도암 환자의 안타까운 사례가 소개됐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사람의 아내인 김 모씨(53세·여성)는 지난 2024년 10월, 간내 담도암 진단을 받았다. 진단 받기 약 두 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구토와 고열 증상이 나타나 CT를 찍게 됐고 최종적으로 ‘간내 담도암’으로 확정된 것.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맷)’는 젠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으로 담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되며 담도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꿨다.

문제는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경우, 국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모씨는 “항암제를 한 번 맞을 때마다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며 “암환자는 산정 특례로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왜 담도암은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암 치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감조차 오지 않았다”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암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더 걱정이 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담도암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재발도 잦은 암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본인처럼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은 무조건 항암 치료에 의지해야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효과가 좋은’ 면역항암제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모씨는 주변의 도움과 제반 여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는 환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만큼 치료 기회는 가정의 경제 상황과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의학신문

### 경영난에 무급휴가도 확대하는 병원들…“이러다 무너진다”



의대증원으로 야기된 경영난으로 병원들이 무급휴가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 집계와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발되자, 계속되는 진료량, 입원, 수술 건수 감소를 우려한 의료원 경영진이 무급휴직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지출인 인건비부터 줄여보자는 목적이다.

대학병원의 경영난은 종별 크기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서울 북부의 한 대학병원은 이번 사태가 연말까지 갈 경우 사실상 더 버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등 대학병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분야의 여파도 큰 편이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서 소모성 치료재료 및 기기 납품이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한 매출 큰 비중의 감소 등으로 기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에 꾸준히 진행되던 의료시설 설계, 건축도 끊겼다. 사실상 최소 진료량 유지하게 됨에 따라 시설투자가 급감하면서 수주도 끊기게 된 것.

병원 경영난으로 인해 대학병원을 둘러싼 생태계까지 악영향을 겪는 가운데,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병원에는 건보

선지금금 지급을 보류하는 정부 결정에 더욱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경영진은 “여전히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있고,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중 하나”라며 “말도 안되는 전문의 중심병원, 상급종병 구조조정을 말하기 전에 지금 당장 버티느냐 마느냐 하는 병원에 시급한 자금지원부터 해야하는 것이 맞아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모양새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 한국기독교보

###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거목의 유품들’



2025년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공보는 한국 장로교회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유산을 되새기는 연중기획을 시작한다. 초기 한국교회에 헌신한 한 선교사의 위대한 신앙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항한 인천시 중구 일대에는 고층건물들과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많아 바다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자리인 인천자유공원 언덕에 올라서자 그제서야 감추인 바다는 모습을 드러냈다. 제물포항 도착 후 이 언덕에 올라 언더우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에는 “오늘 사방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속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이날 부활절 예배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라고 새겨져 있다.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다양한 근대 문물과 문화가 유입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역사자원이 남아 있어 인천시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본산으로 평가받는 이 지역을 ‘개항장 역사문화 스퀘어’로 조성했다.

특히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은 1885년 인천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의 선교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선교 100주년 해인 1984년 기공식을 갖고 1986년 준공한 17m 높이의 탑이다.

이 탑에는 선교사 3명의 청동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이 기념탑은 인천기독교연합회가 세운 것으로, 인천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로 세워져 이곳을 지나는 많은 이들에게 근대 우리나라에 복음과 신문물을 전한 선교사의 업적을 알리고 있다.

## ■ 한국임업신문

### “산불복구…빠른 복구’ 방법 선택을” “산불피해 빠른 복구, 하루가 급해요”

산불피해 산림복구의 방법론이 변화하고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재배로 전환하여 빠른 소득 회복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산불피해 임업인들의 빠른 복구지원에 임업인들이 신속하게 앞장서 묘목기증에 나서는 훈훈한 복구현장을 찾아갔다.







[ 후생신보 창간 70주년 기념사 ]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합시다”

이상철 편집인

후생신보 애독자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계 최초의 신문인 ‘후생신보’가 올해로 창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항상 후생신보를 사랑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는 우선 의정사태의 원만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시작된 의정사태이지만 새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미래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제약계도 세계 제약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신약개발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의료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 반목은 안됩니다.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압박, 특히 인류의 생활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AI)의 엄청난 발전 등 대외적인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후생신보도 급변하는 정치, 경제, 외교 등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건의 약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애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신문 창간 40주년 기념사 ]

## 축산업 혁신만이 살 길이다

윤봉중 회장

985년 축산인들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축산신문이 올해로 창간 40주년을 맞이했다. 돌이켜보면 40년 전 우리 축산업의 상황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농촌사회를 분노와 좌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소 파동과 전 축종의 만성적인 수급 불안으로 인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 와중에서도 중소가축 분야의 전 기업화 움직임이 활발해져 전반적인 규모화에 불이 지펴지기도 했다.

지난 40년을 관통하는 한국축산의 시간은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이는 우리 축산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UR 협상에 따른 WTO 출범과 이어진 FTA 타결 등 전방위적인 수입 개방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른 것은 우리 축산의 기초체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축산이 맞닥뜨린 현실은 외부가 아닌 내부적 도전이란 점에서 지난 40년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 내지는 축소에 방점이 찍힌 지 오래이며 인공 배양육 분야 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 또한 과거와는 많

은 차이가 있다. 축산현장이 기피를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인식되며 반환경의 주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은 미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는 노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생산기반을 가꾸고 생산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과 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혁신을 위한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이 왜 필요한 산업인지를 알리고 이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군을 확보하지 못하면 축산은 고립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모든 분야가 급속한 변화와 혼란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으며 축산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축산인 모두가 생존을 위한 혁신에 매진해야 할 때다. 부족하지만 축산신문 또한 축산업계의 혁신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창간 40주년이 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들과 광고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축산경제신문 창간 35주년 기념사 ]

## 易地思之(역지사지)

김기윤 회장

역지사지(易地思之)란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라’는 사자성어다.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듣는 “입장이 바뀌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80년간 한국의 정치사는 여야의 대립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연속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입장이 바뀌어 죄송합니다” 易地思之(역지사지).

최근 농업 4법이 전 정권에서 반대해, 또 정부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더 삭감되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총리나 장관이 “입장이 바뀌어 죄송합니다”로 바뀌었다. 최근 미증유의 산불로 수십조 원의 재산이 손실됐고, 얼마 전 장마 폭우로 인해 조 단위의 피해를 입어 전국의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아직도 복구가 막막한 현실인데 전 국민이 발 벗고 나서서 힘을 합쳐 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고, 성금 지원이나 자원봉사의 손길이 전처럼 활발하지 않아 서운하고 답답하다. 연간 이자 장사로 수조원씩 수익을 내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의 성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농축산물이 더 이상 희생을 당하지 않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다.전 정권의 농축산업 홀대와 무관심이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기대를 해보자. 잘하고 잘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 농축산 종사자 모두는 천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티나갈 테니까.

최근 지상파 방송과 일부 몰지각한 언론에서 현실이나 실제 파악도 제대로 않고 흥미 본위와 재미 삼아 하는 자극적 보도로 농축산업을 두 번 죽이는 작태가 너무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공산품보다도 모든 물가의 주범이 농축산물이라고 떠들며 상승폭이나 수급현황, 가격 등에 고려하지 않고 침소봉대 과잉 보도가, 어린이가 장난삼아 연못에 돌을 던졌는데 돌의 낙하지점에 있는 개구리는 사할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방송이나 언론사 기자들이 모르는 듯하다.

축산경제신문이 여러 관계자와 독자들 그리고 축산업 종사자들 덕분에 창간 35주년을 맞았고 앞으로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주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내 나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 모두 그리고 농축산업 종사자들 모두 걱정 없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바란다.

[ 한국임업신문 창간 29주년 기념사 ]

## 숲 일구는 숲은 영웅, 임업인의 노고에 감사

임경주 편집국장

울창한 숲이 주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까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묵묵히 땀 흘리며 숲을 가꾸는 임업인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숨어 있다.

한국임업신문은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자연을 선사하는 임업인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숲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나무를 정성껏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 병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솎아베기를 통해 숲의 밀도를 조절하며 산불 예방 및 진압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임업인들의 손길은 숲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이어진다.

특히, 산림은 한 번 조성하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적

인 자원이다.

임업인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가꾼다는 사명감으로 묵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기후변화 시대, 임업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홍수와 산사태를 예방하는 등 재해를 완화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숲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업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임업인들의 땀과 헌신 덕분이다.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임업인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임업인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땀방울이 만들어갈 푸른 숲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 회원사 창간기념을 축하합니다

7월 1일

더바이오(2주년)

한국건설신문(26주년)

한국식품의약신문(21주년)

7월 2일

한국성결신문(35주년)

7월 3일

화광신문(34주년)

7월 15일

중소기업뉴스(60주년)

룩앤세프(11주년)

8월 1일

식품저널(28주년)

8월 4일

환경타임즈(33주년)

9월 19일

농업축산신문(19주년)



| 현장·단독 |

## 제2연평해전 358정 첫 증언… “국가가 우리를 참전용사로 인정안해”

주간조선은 지난 8월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8정에서 싸웠던 세 명의 참전용사를 만났다. 358정 승조원들이 언론과 공식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에는 2022년 2월 전역한 황종관(58) 예비역 원사, 2004년 6월 전역한 김유환(46) 하사, 그리고 익명을 요청한 358정 승조원 1명이 참여했다.

### 사격부터 구조작업까지 목숨 바친 358정

이들은 이후 좌현으로 기울고 있는 참수리 357정으로 옮겨가 화제 진압과 전사자 구조에도 투입됐다. 당시 구조 작업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황 원사는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은 처음 목격했다. 357정은 집중 포화를 맞아, 뒤불놀이 때 쓰이는 강통처럼 불빛이 포탄구멍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고함과 말로 못할 욕설과 아우성이 귀를 때렸다. 말문이 막혀 헛기증이 나는 것도 잠시, 358정 수병들은 너나할 것 없이 357정으로 뛰어 들어갔다. 갑판상은 온통 피투성이였으며, 포대 아래에는 전사한 동료들이 쏜은 피와 내장 분비물들로 가득했다.”

황 원사는 “357정 기관실로 직접 들어가 방수 작업을 했다”며 “비상소화펌프 네 대 중 정상적으로 돌아간 건 358정에서 가져간 한 대뿐이었다. 그 펌프 덕분에 침수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전사자와 부상자를 이송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침수는 건잡을 수 없이 진행돼 기관실은 가슴 높이까지 바닷물이 차올랐고, 그는 “밸브 플레이트에 빠진 발목을 잠수해서 억지로 빼내며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때는 그대로 죽는 줄 알았다”고 회고했다. 황 원사를 포함해 구조 작업 당시 남아 있던 358정 승조원 여섯 명은 침몰 직전의 357정에서 또 다른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그 순간의 고통은 황 원사에게 평생의 상처가 됐다. “그때 다친 발목이 결국 연골 파열로 이어져 지금도 제대로 걷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목 부상은 국가유공자 신청 시 제외되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판정을 받았지만, 가장 낮은 단계인 7급이다.

김 하사는 당시의 참혹한 장면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357정



구조작업 중 다리가 뒤로 돌아간 채 살점만 조금 붙어 있는 인원과, 얼굴이 반쯤 사라진 상태의 동기를 목격했다. 그 자리에서 뇌수가 흘러나리고 있었고, 도저히 다가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358정으로 357정의 전사자와 부상자를 옮겨왔을 때, 갑판은 피로 얼룩졌다. 당시 대원들은 한내 침대를 모두 뜯어내 임시 들것으로 사용해 사상자들을 이송했다. 그러나 피가 스며든 시트와 프레임은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 김 하사는 “교전 다음 날 첫 지시가 피 묻은 침대와 전투복을 세탁하라는 것이었다. 고속정엔 세탁실도 없어 수병들과 사위실에서 직접 빨아야 했다. 핏자국이 너무 깊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락스로 빨고, 안 지워지는 부분은 침대를 흰색 페인트를 덧칠해 사용했다.”

교전 직후 대원들은 평택항에 머물며 국정원과 국방부 조사를 받느라 정신적·육체적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황 원사는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우리 동료들은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는데, 한 상급부대에서 순시를 온다며 피투성이 갑판을 청소했다”며 “더 황당한 것은 직접 한 발도 맞지 않은 358정을 본 그의 입에서 ‘아무것도 없네, 뭐한 거야, 전투 흔적은?’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익명의 한 참전용사는 “18일간 평택항에 대기하면서 의무대 진료조차 받지 못했고, 수병들은 트라우마로 자다가 괴성을 지르는 등 극도의 불안정에 시달렸다”며 “막걸리를 먹어 재우거나 함께 바닥에 누워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속정 복, 단화, 속옷, 러닝셔츠와 양말에 묻은 전우들의 피가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아 새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너희가 한 게 뭐

가 있냐며 보급조차 거절당했다.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 358정 인원, 공식 참전장병으로 집계 안 돼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358정의 교전 내용을 공식적으로 재평가하고, 참전장병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이들 승조원들은 모두 제2연평해전 참전장병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지위도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황 원사는 정년을 1년6개월 앞두고 전역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군 생활을 34년 했다. 다들 정년퇴직을 하길 바랐는데 1년6개월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했다. 또 배를 타라는 거다. 배만 타면 울렁거리고, 현장에만 가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도 배를 타라는 거다.”

김 하사도 비슷한 이유로 군을 떠났다. 교전 이후 새로 발령받은 부대에서는 ‘358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투에서 동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며 비난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결국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직업군인 장기복무를 포기하고 교전 2년 만인 2004년 전역했다. 김 하사는 인터뷰에서 ‘제2연평해전 교전 참가’라고만 적힌 자신의 군 경력증명서를 꺼내 보이며 “아직도 공식적으로 참전용사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최근 해군이 참수리 358정을 연령이 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통상 수명이 다한 함정은 해외로 양도가 된다”며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다. 승전한 배를 357정처럼 상가대에 올려 기록에 남기고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한 참전용사는 인터뷰 도중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손으로 눈가를 감싼 채 고개를 숙였다. “내가 왜 (358정에서 357정으로 구조 작업을 위해) 나가서 뛰어 넘었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이라고 읊조리는 그에게 기자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냐”고 묻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답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선택할 생각조차 안 했다. 그래도 우리 358정은 한 발도 안 맞았지 않았냐. 아마 357정 대원들의 상처가 더 깊을 것이다.”

출처: 주간조선(9월 16일) 권아현 기자

## ‘신입생 모집 비상’ 걸린 대학은?… 지방대 위기 가속화

한국대학신문이 지난 9월 16일 각 대학들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취합한 결과 정원 미달 경고등이 켜진 ‘0점대 경쟁률’을 기록한 대학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7곳 중 일반대 10개교가 6대 1 이하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몇몇 대학들의 경우 1대 1에도 못 미치는 0점대 경쟁률을 기록하며 학령인구 감소가 더 이상 ‘미래의 위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임을 증명했다.

■ 수험생 늘어도 여전히 지방대 위기 = 올해 대입은 황금돼지 띠의 해에 태어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난 해다. 수험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의 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명성을 떨치던 지방 사립대들 또한 이번 수시모집에서 경쟁률 6대 1을 넘지 못하며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타를 피하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경성대, 동명대, 동의대, 부산외대, 영산대, 울산대, 가야대, 경남대, 인제대, 창신대 등의 경쟁률은 3대 1에서 6대 1 사이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경운대, 감천대, 대구대, 대구예대, 동국대(WISE), 동양대, 신경주대, 한동대 등이, 호남·제주지역에서는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세한대, 초당대, 제주국제대 등이 경쟁률 6대 1 이하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강원·대전·충청지역 또한 다수의 대학이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한라대, 한림대, 가톨릭꽃동네대, 극동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금강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선문대, 청운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남대 등이 6대 1 이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경영위기대학’들의 연이은 위기 = 올해 수시모집에서 이목이 집중된 부분 중 하나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과 경영위기대학의 경쟁률이다. 지난 8월 교육부는 경영위기대학으로 △대구예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를 지정했다. 아울러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으로는 4개 대학에

더해 △가톨릭관동대 △금강대 △영남신학대 △예원예술대 △한국침례신학대 △화성의과학대 등 10곳을 발표했다.

이번 수시모집 경쟁률을 보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과 경영위기대학 선정이 큰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경영위기대학들이었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대 위기 심화, 전문가들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생존 어려워” = 올해 수시모집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대의 위기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한 비수도권 대학 교수는 “지방대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방 인구가 줄고, 이는 다시 지방 대학의 신입생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대학들이 단순히 정원을 채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학과를 신설하거나 교육의 질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또한 단순히 정원 감축 정책을 넘어 지방 대학에 대한 실질적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한국대학신문(9월 16일) 백두산 기자





회원사 인사

기독교신문

장봉생 총회장 당선

기독교신문을 발행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110회 총회를 열고 임원선거를 통해 단독 후보로 오른 장봉생 목사(사진)가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후 총회 둘째 날인 9월 23일에는 총회장 아취임식을 가졌다.

총회장 김종혁牧사는 신임 총회장 장봉생 목사에게 성경과 헌법, 고퇴를 전달했다. 전체 총대들은 기립해 장봉생 총회장이 한 회기 동안 총회를 잘 이끌어주길 기원했다.

신임 장봉생 총회장은 “잘하겠습니다”라는 짧은 취임사를 전했다. 이후 장봉생 총회장은 직전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회무를 이어갔다.



를 통해 구재이 현 회장(사진)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2년간 세무사회는 혁신을 이어왔다. 부족한 능력으로 변방의 세무사에 불과하지만 회직자로서 명예나 지위 따윈 버렸다”며 “오직 세무사회의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위해 모든 것들을 바꾸는 바탕을 깔았다. 그 바탕 위에 중단 없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완성해서 반드시 회원께서 간절히 바라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제대로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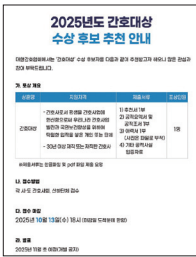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추천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수상 후보

자격은 30년 이상 재직 또는 재직 중인 간호사 또는 간호 사업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다. 제출 서류는 추천서, 공적 요약서 및 공적 조서, 이력서, 사진, 그리고 기타 공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며, 한글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2260-2541



국세신문

안형태 마포세무서장 내방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지난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

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

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조성에 앞으로도 국세신문사의 변함없는 조연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여성신문

남우회 기금 전달식

농촌여성신문(발행인 이진희)을 발



행하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와 오랜 인연으로 매년 생활개선회 교육회관 건립 성금을 후원해온 남해화학 퇴직 임직원들의 모임 사단법인 남우회가 올해도 후원의 손길을 이어갔다.

황윤섭 회장을 비롯한 이강재·김운봉 부회장, 김종욱 사무총장 등 남우회 임원들은 지난 9월 8일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를 방문해 농촌여성교육회관 건립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남우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과제기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물류신문

산학인재 양성 위해 대학·협회와 업무협약



물류신문(발행인 장지웅)이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 한국물류관리사협회와 지난 7월 11일 물류신문 본사에서 산학인재 양성과 새로운 비지니 모델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언론사, 대학, 협회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각각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물류유통 시장 안정화와 인재육성, 다양한 사업확장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식품음료신문

2026 K-푸드 수출 성공 전략 세미나



식품음료신문(발행인 이근호)은 오는 11월 4일 aT센터 창조룸에서 ‘2026 K-푸드 수출 성공 전략’ 세미나를 ‘라벨링 하나로 수출이 막힌다’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K-푸드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라벨링 등으로 인한 수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사전 등록은 식품음료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 15만원이다.

문의: 02-3273-1114

환경 타임즈

환경타임즈-태진자산관리 업무협약

환경타임즈(발행인 유철)와 태진자산관리는 지난 7월 28일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친환경 건축물 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한웅 환경타임즈 사장과 이영석 태진자산관리 대표가 참석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부합되는 친환경적 건축물 관리(K-CLEAN)에 앞장서 나갈 것을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pma.kr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한국전문신문협회 임원사  
이 컷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회장·발행인 김광탁 명예회장·편집인 박두환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김관홍 정재환 김종철 | 감 사 백용태 오경섭  
이 사 이근호 박연준 이진희 김중규 홍 준 | 고 문 함용현 김시중 유태우 이덕수 양영근  
방두철 양옥석 조경욱 주동담 유 철 | 조창희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주)한국씨티에스

전문신문 제작의 역사 SINCE 1989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F  
관리부 02 362 1199 영업부 02 362 6677 전산실 02 362 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운수동)  
02 2684 3377





### 2025년 6~8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5.06.01.~2025.08.31.)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서울 다50836	ROBOT PLUS 로봇신문	(주)로봇신문사
경기 다50805	광명방송	(주)광명닷컴
경기 다50804	뉴스따옴(News 따옴)	(주)뉴스따옴
경기 다50803	광명포스트	더광명포스트(주)
인천 다06157	기독교방송	기독교방송사
인천 다06156	기독교TV	기독교TV사
부산 다04530	뉴스1	뉴스1사
대구 다04680	이슈어스(Issueus)	(주)이슈25
경남 다01568	창녕연합신문	(주)창녕연합신문
경북 다01556	작은 눈, 큰 세상 어린이신문	작은 눈, 큰 세상 어린이신문사
경북 다01555	예주신문	(주)대구광역일보
전남 다00463	뉴팩트라인	뉴팩트라인
전남 다00462	시사투데이타임즈	(주)시사투데이타임즈
전남 다00460	뉴스엔티비 주식회사	뉴스엔티비(주)
전남 다00461	더 타임즈 진도	더타임즈진도(유)
충남 다01406	삽교신문	(주)삽교신문

####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손해배상

##### 2023서울조정2784 손해청구

언론사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여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명인이 연루되어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 보도를 하면서, 사건 피의자가 유명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하여 보도와 함께 게재했다.

###### □ 신청이유

신청인은 해당 사진 속 인물은 피의자가 아니라 동생인 자신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기사를 삭제하긴 했으나, 이미 동일한 내용이 다른 인터넷 기사 혹은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퍼져나가 신청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이 양산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피의자에게 동생이 있는지 물렸고, 피의자가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여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비식별처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 신청인의 연락 후 피신청인 언론사가 즉시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한 점, 손해배상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5백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 기독교연합신문

#####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기독교연합신문 출판사 UCN에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을 발간했다. 이 책은 기독교연합신문 발행인 이자 백석대학교 총장인 장종현 박사가 집필했다.

지난 2003년 10월 25일 천안 백석대학교 국제회의실. 이곳에는 약 350여명의 국내외 신학자들이 모여있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에배 설교에 나선 백석대 총장 장종현 박사는 회중을 바라보며 힘주어 외쳤다. “신학자 여러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앞에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어떤 이들은 놀란 눈으로,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설교자를 마주했다. 그날 이후 20년이 훌쩍 지났다.

이 오랜 시간 장종현 박사는 한국교회를 향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라고 외치며 신학 회복과 신학교육 개혁에 열정을 쏟고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얻은 결론 7가지를 신간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에 담아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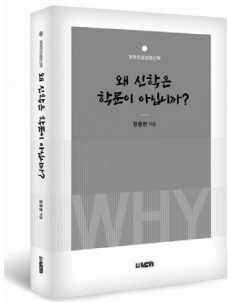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학문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계시인 성경에 기초한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학이 성경을 반겨주는 도구이자 수단으로 바른 역할을 감당할 때 목회자와 신학자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교회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1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제2부 신학이 학문이 아닌 7가지 이유 △제3부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생을 주는 신학 △제4부 생명을 살리는 신학교육을 위한 과제와 전망으로 구성돼 있다.

가격: 22,000원 / 문의: 02-585-2751~3

#### 협회보 칼럼모집

- ◆ 원고내용 : 각 산업별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
- ◆ 대상 :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 문의 : 02-334-7251~2
- ◆ 접수방법 : 웹하드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mailto:kosna1964@naver.com)



#### 장업신문

##### 2025년 대한민국 화장품 제조·부자재 기업 총람

장업신문(발행인 이관치)이 화장품 산업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주요 화장품 제조사와 부자재 기업을 정리한 ‘2025년 대한민국 화장품 제조·부자재 기업 총람’을 발간했다.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주요 기업의 현황 자료를 최대한 포함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화장품 제조 부자재 기업 총람’은 제조사, 부자재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주요 기업들을 소개한다. 이들 기업의 일반 현황과 특징, 생산능력, 특허, 인증 현황 등의 자료를 꼼꼼히 수록했다.

가격: 35,000원

문의: 02-2636-5727



#### 중소기업뉴스

##### 2025 중소기업 CEO 단골 맛집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을 발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 중소기업 CEO 단골 맛집’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 발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범중소기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중기중앙회 지역회장을 비롯하여 총 200여 명의 중소기업 단체장과 CEO들이 직접 즐겨 찾는 맛집을 추천했다.

동 책자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전국 80여 개의 여행지와 각 지역에서 사랑받는 숨은 맛집 510개의 상호명, 연락처, 추천인, 한줄평 등이 수록됐다.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은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로 휴가가고! 지역소비 늘리고!’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지역 맛집 정보 제공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 프로모션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5 중소기업 CEO 단골 맛집’ 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http://www.kbiz.or.kr)) ‘정보마당’ 내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문의: 02-2124-3114



##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